

2023.06.23.(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서지원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8888-364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 29일차 단식현장 방문

2023년 6월 23일(금) 08:00,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앞 농성장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 이하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오전, 클렌징 제도 문제 해결 및 해고조합원 복직 등을 위해 23일 현재 단식 29일차인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 단식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쿠광지회는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의 클렌징 경쟁 시스템 문제 및 관련하여 해고된 조합원 전국 총 11명에 대한 복직, 현재 100원인 프레스백 회수 수수료 현실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비롯한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광로지스틱스의 클렌징 제도는 영업점과의 계약서에 구역을 배송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쿠광로지스틱스 본사와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더운 여름에 생명을 위협하는 단식을 중단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며 “국회에서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쿠광로지스틱스가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노사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민정 의원 역시 "쿠광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 사진 2장

